

프랑스

프랑스 문화계와 밀란 쿤데라의
팽팽한 신경전

박해현_조선일보 파리 특파원

올해의 상반기 프랑스 문학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작가라면, 새삼스럽게 밀란 쿤데라를 꼽지 않을 수 없다. 이미 한국어판으로는 《향수》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쿤데라의 소설 《리노랑스 L'ignorance》가 문학 저널리즘의 찬사를 한몸에 받았고,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꾸준히 올라 있다.

이 소설은 국내에도 다 알려져 있다시피, 공산주의 체제의 체코를 떠나 서유럽으로 망명했던 체코인 남녀가 공산주의 붕괴 이후 시도한 귀향의 여정을 따라간다. 귀환과 고통을 뜻하는 그리스어의 합성어인 '노스탈지'가, 떠나온 고향 혹은 이별한 애인의 현재에 대해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고통이란 점에서 쿤데라는 이 소설의 제목을 《리노랑스》(무지)라고 붙였다. 그러나 한국어 번역자인 박성창은 이 소설의 주제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어감도 더 좋은 '향수'라는 제목을 골랐다. 쿤데라는 외국어로 번역되는 자기 책의 내용은 물론이고, 제목도 직역하기를 고집하지만, 한국어판 제목 《향수》에 대해서는 응낙했다고 한다.

한국에서 지난 2000년 출간된 《향수》의 원고는 프랑스어로 씌어졌다. 프랑스어 원전보다 외국어 번역본이 전 세계 30여 개 나라에서 먼저 나온 뒤, 올해 4월에야 프랑스에서 출간됐다. 극히 이례적인 경우다. 쿤데라가 갈리마르 출판사에 원고를 넘긴 뒤에도 출판 허락을 내리지 않아, 프랑스의 쿤데라 애호가들은 외국어로 번역된 그 소설을 찾아 읽거나, 3년 이상을 기다린 끝에 쿤데라의 신작을 읽게 된 것이다.

오랜 갈증 끝에 마시는 샘물이 황홀하듯, 프랑스의 주요 언론들은 쿤데라의 신작에 경쟁적으로 감탄했다. 체코의 프라하에서 파리로 망명한 지 30여 년이 넘는 쿤데라가 1990년대 후반부

터 프랑스로 소설 창작을 시작한 결과로 내놓은 《느림》, 《정체성》과 같은 작품이 비평가들로부터 두들겨 맞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었다.

쿤데라의 《느림》과 《정체성》에 대한 당시 언론의 혹평은 말 그대로 잔혹했다. 일간지 리베라시옹은 “거의 표현력이 부족한, 빈약한 문체로 인해 미완의 작품이라는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고, 주간지 렉스프레스는 프랑수를 사용하는 쿤데라를 가리켜 “뻣뻣하고, 조야하고, 시학詩學도 없는 데다가 과시욕까지 겹친 한 프랑스인”이라고 조롱했다. 심지어 “쿤데라는 프랑스의 3류 작가가 됐는가?”라는 소리까지 나왔다. 쿤데라는 언론과의 직접 인터뷰에 응하지 않는 고집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의 반응은 표면에 떠오르지 않았다. 다만 그가 분노했다는 사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을 뿐이다.

쿤데라는 《향수》를 탈고한 뒤 아이슬랜드, 이탈리아, 스페인에서 먼저 출판했지만, 프랑스어 출판은 계속 미뤘다. 일간지 르 피가로가 ‘쿤데라는 그를 받아준 프랑스에 빼쳤는가’라는 기사를 내보내면서 안달했지만, 쿤데라는 무거운 침묵을 통해 프랑스 문단에 대해 거부감을 표명했다. 오죽했으면, 프랑스 비평가들에게 심하게 당한 쿤데라가 다시 프랑스로 창작을 재개한 것은, 그 언어에 대한 복수가 아닌가라는 지적도 나왔다. 아무튼 그런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야 나온 《향수》는 “실존의 고통과 환멸을 깊이 있게 다뤘다”는 식의 찬사를 받았고, 올해로 제정 100주년을 맞은 공쿠르 문학상의 유력한 수상 후보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향수》에 대한 서평 중에서 눈길을 끈 것은, 지난 2001년

메디치 문학상 수상작가이자 음악 평론가인 베누아 뒤퇴르트르가 쓴 글이었다. 그는 쿤데라의 소설이 여러 개의 언어로 번역되더라도 공통점을 간직하는 비결이라면, 간결하면서도 은밀하게 음악적인 문체 구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난 쿤데라는 플로베르, 카프카, 헤밍웨이처럼 소박하면서도 간결하고, 효과적이면서 은유나 걸맞지 않는 동사의 사용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거기에 비해 오늘날의 프랑스 작가들은 문학을 문체 탐구 혹은 단어와 구문 놀이로 축소시켰다는 비판을 받는다. 쿤데라는 소설이 등장인물과 상황, 세계관, 이야기의 구성력으로 이뤄진다는 것을 새삼스레 환기시킨다는 얘기도.

또한 주간지 <르 푸앵>의 서평자도 “쿤데라와 비교할 때, 프랑스 작가들은 어린이 방에서 당구를 치고 있고, 그들은 (출판사의) 감상주의적 마케팅이란 거품 속에서 재잘거리고 있다”고 일갈했다. 쿤데라에 대한 찬사가 요즘 프랑스 작가들에 대한 불만과 질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간지 르 몽드의 서평 페이지는 ‘쿤데라라는 우울’이란 제목으로 전면을 할애하면서, 이 소설을 가리켜 “등장 인물들이 각자의 기억과 연속적인 집착, 각자의 환멸과 실망 사이를 꾸불꾸불 빠져나가는 슬픔으로 가득 찬 소설”이라고 극찬했다. 이 서평은 쿤데라 소설이 철학적-역사적 진술에도 불구하고, 에세이 속에서 소설을 꽃피운다며 그 서사성을 강조했다.

쿤데라의 소설들은 《불멸》 《느림》 《정체성》이란 제목에서 풍기듯이, 그 안에 소설이라기보다는 논문을 담고 있는 듯하지만 사실에서 성찰로, 외부에서 내부로, 개별에서 보편으로 이동하는 철학적 진술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각 개인들의 환원되지 않는

실존의 신비와 인생 전체에 미치는 순간적 선택의 무게를 소설화한다는 것이다.

쿤데라의 소설에 대한 이러한 서평들을 읽다 보면, 오늘날 소설의 활로에 대한 프랑스 문단의 고민이 드러난다. 철학적 깊이와 역사적 인식을 요구하면서도 에세이가 아닌 등장인물들의 이야기로서의 소설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이다. 한때 유행했던 누보 로망과 같은 실험소설에는 진저리를 치고 있다. 동시에, 쿤데라의 《향수》는 20세기 격동기를 보낸 유럽과 그 이후에 대한 오늘날 유럽인들의 실망과 환멸을 대변하기 때문에 더 잘 읽힌다는 지적도 있다. 나치즘과 코뮤니즘이라는 양대 전체주의를 겪어야 했던 비극적 역사는 유럽인들을 늘 사로잡는다. 그 비극을 조잡하게 표현하거나 거꾸로 망각케 하는 온갖 키치(Kitch)들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철학자인가 하면, 그런 세계 속에 떨어진 개인의 불안과 우연에서 서정시를 찾는 시인이 소설가로서 쿤데라의 초상이기 때문이다. ■